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민생경제는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민생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경제옥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전략은 이미 그 수명이 다했습니다. 이제라도 경제성장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과 노동이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생경제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공정임금과 조세개혁

박근혜정부의 경제에는 서민과 중산층이 없습니다. 서민은 벼랑 끝에 매달려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민생이 없는 경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는 경제도 아닙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평등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임을 지적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부자증세 조세개혁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민생의 출발은 임금과 조세개혁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경제, 그것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가계부채가 1,257조가 넘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만신창이입니다. 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주십시오.

박근혜정부에서 2013년 한해에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4만 9997명이나 되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20여만 명의 가족이 일자리를 잃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 대기업 여러분들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주십시오.



더불어사는 민생이야기

추미애의 추석편지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민생 보다 정치가 앞 설 수는 없습니다.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혼쾌한 수용을 기다리겠습니다.



“삼외는
죄가
없습니다”



경제가 숨쉬는 ‘민생 안보’로
가야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볼모로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습니다. 외교와 안보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입니다. 사드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주변국들과 외교적으로 문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입니다.** 안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안보를 구실로 방산비리와 같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안보를 이유로 국민을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낡은 안보관입니다.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생안보의 길입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기억합니다.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 가슴기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계신 분들을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과 통합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의 추석편지

더불어민주당

